



교원
학원의 민주화
사상의 민주화
생활의 민주화

대학주보

개교 49
경희대학교 1949-1998

1998년 7월 27일 (월요일)

THE DAEHAK-JUBO

제1150호 1

□ 기획취재 - 계절학교 위상 및 역할 점검

‘학점따기의 전당’ 계절학기, 다시 서야할 때

학점 표준화 제도 적용, 행정 서비스 개선, 학생 의식 개혁 우선돼야



계절학기에 대한 인식변화가 필요하다

정규학기를 제외한 또 하나의 학기, 바로 ‘계절학기’이다. 계절학기는 복학, 재수강 등의 사유로 정규학기 이외의 수강이 필요한 재학생에게 수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조기졸업 및 복수전공이수 학생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최대 6학점까지 취득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여름 계절학기를 수강한 우리학교 학생의 수는 캠퍼스별로 각각 600여명에 달한다. 그러나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들 가운데 불만을 토로하는 학생을 찾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계절학기가 다 그렇지’라며 불만 조차 늘어 놓지 않는다.

정규학기 기말 시험이 끝난 후 1개월 내에 이루어지는 계절학기는 조기졸업, 복수전공이수 학생들보다는 재수강과 8

학기내 졸업에 위한 수강 학생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인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의식과 더불어 계절학기의 의미를 실추시키는 것이 바로 운영상의 문제이다.

이번 방학 중 서울캠퍼스에 개설된 한 강좌의 경우, 학생들의 성적을 산출하는데 있어 출석과 과제만을 기준으로 삼았는가 하면 강사가 4일 이상 강의에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알 수 없는 것은 해당 강좌 학생들이 평균 학점 ‘A’, 담당교수는 “방학 중에 애써 계절학기를 듣는 학생들에게 무엇하러 나쁜 학점을 주겠느냐”며 “될 수 있으면 좋은 학점을 주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 캠퍼스가 계절학기에 한해 수강인원의 40% 이내만 B+이상의 학점을 허용하는 학점 표준화 제도를 적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정규학과와 같이 학점 표준화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유는 계절학기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라고 이종희 수업과장은 밝혔다.

반면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6일까지 계절학기를 실시한 수원캠퍼스의 경우, 이번 학기부터 학점 표준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수강료와 관련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2면으로 이어짐〉

편입학 경쟁률
서울 10.85, 수원 4.78



지난 22, 23일 편입학 원서접수 결과 서울은 121명 정원에 1,313명이 지원했으며 수원은 240명 정원에 1,147명이 지원했다.

전반적으로 2학년의 편입률이 높았으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과는 국어국문학과로 25대1을 기록했다.

서울 이준혁 부총학생회장 연행

지난 20일, 서울캠퍼스 부총학생회장 이준혁(한의94)군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청량리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이군은 이날 오후 11시경 후배 자취방에서 연행되었는데, 한총련 이적단체 가입 및 불탈퇴, 한총련 대의원 대회 참여 등이 연행 이유로 제시되었다.

한편 이군은 지난 23일 구속 조치되어 2-3개월 내에 재판을 받게 된다.

외국학술잡지 공동구독 협의

허종 수원캠퍼스 도서관장은 우리학교를 포함 경기 지역 6개 대학에 외국학술잡지 공동구독을 제의, 추진 중이다.

외국학술 잡지 공동구독 협의는 외화로 지불되는 외국학술잡지를 인근 대학과 공동으로 구독함으로써 중복 구독되는 잡지비의 예산을 절감하고 폭넓은 자료를 보유하고자 기획하게 되었다.

제 6회 목련음악회



서울캠퍼스 크라운관에서 7월 14일 오후 2시 제 6회 목련음악회 겸 임시설명회를 개최하였다.

9개 고교, 767명의 학생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목련음악회는 99학년도 임시요강 설명회, 음악회, 캠퍼스 관광 등을 내용으로 행사가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할 점은 모의논술고사의 실시와 많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도이다.

학생들의 많은 참여는 목련 음악회 이전에 먼저 30대 우수 고교생 간담회를 먼저 실시한 것이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되며 그로 인해 모의 고사의 경우도 기존의 것보다 데이터가 다양해져 입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학부제 3개분야 총 9개학부로 확정

복수전공 편의 위해 전일제 수업 채택, 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1학기동안 계속적으로 논의되어 왔던 수원캠퍼스 학부제 안이 3분야 총 9개 학부로 확정되었다.

지난 15일 부총장실에서 개최된 교내 언론사와의 기자회견회를 통해 확정,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응

최종 학부제 개편안

가. 응용과학 및 공학(자연계열)분야

학부명칭	개설전공
전자정보학부	전자공학, 전자계산공학, 전자파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물리 및 응용물리, 수학 및 응용수학 (응용수학, 일반시스템공학)
기계·산업시스템공학부	기계공학, 산업공학, 신소재 공학 (원자력)
환경·응용화학부	화학공학, 화학 및 정밀화학, 환경화학 및 환경공학, 고분자 및 섬유
생명과학부	유전공학, 식품공학, 생명공학, 신약공학, 원예학
토목·건축공학부	건축공학, 토목공학

나. 국제전문인력양성(인문사회, 어학계열)분야

학부명칭	개설전공
국제·경영학부	국제 경영 및 재무금융, 마케팅, 인사·조직, MIS 및 생산관리, 통상
외국어학부	국제관계 및 지역학, 세무 및 기업회계, 기업경영 및 벤처비즈니스 영어, 유럽어 및 지역학군 주간 : 스페인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야간 : 미국학, 중남미학, 불란서학, 러시아학 동아시아어 및 지역학군 주간 : 한국어, 중국어, 일어 야간 : 한국학, 중국학, 일본학

다. 생활예술 및 체육분야

학부명칭	개설전공
예술·디자인학부	산업디자인학, 시각디자인, 조경학, 의류디자인, 애니메이션, 도예학
체육과학부	(체육과학전공, 골프경영전공, 태권도화전공)

※ 가, 다 분야의 ‘()’ 안은 학부안에서 과제제 유지

1998년 7월 15일 발표

에는 △예술·디자인학부 △체육과 학부가 소속된다.

특히 이번 학부제 확정안에 따라 행정학과와 사회학과 등 사회과학분야 일부 학과들이 서울캠퍼스로 이전될 계획이며 9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서울 수원캠퍼스간 중복학과를 재편하여 전반적으로 대학특성화를 추구한다는 점이 특이사항으로 주목된다.

조원경 교무처장은 이번 학부제 안에 대해 “전공 심화과정과 복수전공을 위한 강좌의 동시 개설 등으로 인한, 전공선택의 다양성, 학사운영의 효율성 등이 이번 학부제 편성의 기대효과이다”라며 “학부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주요 교양과 전공필수는 주·야간 동시 편성을 원칙으로 하며 비인기 전공과목의 용이한 개설과 유지를 위하여 전공과목 개설 지도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재학생은 전체 구성원의 동의에 의해 개편된 학부제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복학생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이전의 학부과정 및

개편되는 학부과정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한편 계속적으로 학생사이에서 문제로 제기되었던 소속감의 결여를 해결하기 위해 1학년의 시간표 편성은 기초과목의 경우 학부별로 반을 편성하고 일부 교양선택은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편성하는 안이 제시됐다.

홍진일 (건축 4) 총학생회장은 개편된 학부제에 대해 “100% 만족할 수는 없지만 학교측과 계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한 만큼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일부 문제시되는 사안의 경우 계속 논의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한 확정안은 오는 8월 10일 교육부에 상정, 승인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학사편제가 대폭적으로 변함에 따라 학교는 99학년도 입시홍보에 개편된 학부안을 홍보해 신입생을 모집할 계획이며 중앙 행정부서의 학적업무를 각 단과대학으로 분산할 계획이다.

〈김문택 기자〉

강남 한방병원 개원

31일까지 실직자 등 의료보험금 면제

7월 9일 오전 10시 강남 한방 병원 개원식이 열렸다.

학원장 및 총장, 총동문회장과 주요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제1부 개원테이프 컷팅에 이어 제2부 주요 인사들의 축사들의 본식이 행해졌으며 제 3부에서는 리셉션을 가졌다.

이경섭 병원장은 “강남한방 병원의 개원은 제 3의회의 창조라는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말했다.

개원식이후 바로 진료에 들어갔



으며 강남지역 실직자 및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오는 31일까지 의료보험 본인 부담금을 전액 면제해준다.

〈고세희 기자〉

경희 space



이것이 학내 자치 공간의 현주소

총학생회가 ‘경희 사람 생활 문화 운동’의 항목으로 ‘우리의 자치 공간, 자치권은 우리 손으로’를 부르짖고 있지만 학생들은 묵묵부답인 듯. 우리의 자치 공간은 우리가 돌보고 정리해야 하는 곳을 잊지 말자.

지면안내

- 4 시사
양심수 석방 서약서의 문제점
- 5 사회
흔들리는 대북정책 ‘햇볕론 vs 강동론’
- 6 방학특집
어름방학 체험기
- 7 학술
라니냐와 기상이변
- 8 문화
박세리 신드롬으로 본 스포츠 마케팅



이 주의 Focus

등록기간

98학년도 2학기 재학생 등록이 오는 8월 13일부터 시작된다. 경제대의 가중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집들이 많아 각 대학들마다 휴학생이 늘어나는 추세라는데 2학기 등록 학생은 얼마나 될까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연속 3회의 학사 경고자가 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 등록한 학생이 늘어나는 생각도 해본다.

합은 현실에서 등록하는 만큼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본연의 임무를 되새겨야 할 때이다.

〈취재부〉

교내 단신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 7월 8일 오전 10시 서울 캠퍼스 대회의실에서 ‘제1회 인터넷 홈페이지 경진대회 시상식’이 열렸다.

총 6개 부문 98개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치과대학과 공과대학 산업공학과가 총장상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부총장상, 특별상, 우수상, 장려상과 상금이 21개팀에게 주어졌다.

종합상, 최신상, 창의성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한 이번 대회는 작년 11월에 개최되어 올해부터 시행된 우리학교 홈페이지를 활성화하고 좋은 작품은 기존의 홈페이지에 반영, 적극 활용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실시되었다.

수원에 총 1,200여권 도서 기증 서울캠퍼스 체육학과 박철빈 교수가 지난 22일 체육관련 교양서적 800여권을 수원캠퍼스 도서관에 기증했다.

또한 지난 6일에는 자연대 수학과 김광한 교수가 300여권의 러시아 원서 및 교양서적을 기증하기도 했다.

사서과 정규진 과정은 “이와 같은 기증이 곧 학교 발전의 밑거름”이라고 말했다.

수원 총학생회 신문 발송 수원 총학생회는 오늘 자체적으로 발간하는 총학 신문을 집으로 발송한다. 1만 명에 달하는 재학생에게 보내는 이번 신문은 총 8면으로 총학생회의 상반기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학생회관 매장 우정원으로 이동 개강 후 8월말 완공 예정인 우정원 1층으로 학생회관 매장이 이동한다. 이번 이동으로 복사실, 식당, 이발관, 컴퓨터 대리점을 제외한 학생회관 부대시설이 모두 이동하며, 매장지리는 총학생회가 학생 전시실로 이용할 계획이다.

한편 1학기에 신설된 경희매장 지리는 학생 휴게실로 이용될 계획이다.

휴게실에는 LAN이 연결된 5대의 컴퓨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데

‘급하다고 바늘 허리에 실 매어 쓸까’라는 말이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도 있다. 모든 일을 처리함에 있어서 알아야 할 ‘절차’가 있으며 올바른 판단을 위해 ‘여유’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내년이면 우리 학교는 개교 50주년을 맞는다. 학교는 개교 50주년 기념 사업회를 만들고 각종 기념 사업을 마련하는 등 개교 50주년 맞이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교측이 기념 사업으로 선정한 사안 가운데 하나가

현재 공사중인 대강당의 완공이다. 이에 따라 대강당 옆에 지리한 소각로의 이전 문제가 시급한 문제로 떠오르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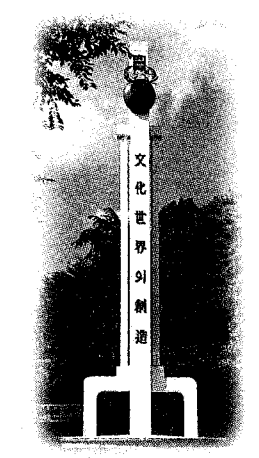
소각로 이전 문제를 담당하게 된 관리과는 이전 장소로 사범대 옆으로 결정하고 사범대 학장에게 6월 25일 전후 통보를 했으며 다음 날인 26일 이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렇듯 다급한 처리 과정은 결국 학내 마찰이라는 결과를 낳았다.

미술교육학과 학생들이 야외 실습장으로 이용하던 장소로 소각로가 이전한 것을 뒤늦게 알게된 사범대 학생회는 논의 끝에 관계 부서를 방문해 소각로 설치에 항의하는 한편, 가동중이던 소각로 주변의 쓰레기들을 치우고 바리케이트를 쳐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하였다. 사범

대 학생회측은 “소각로의 설치를 위해 알아야 할 절차를 무시한 점을 용납할 수 없으며 더욱이 야외실습장의 학생 작품들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관계자를 입회시키지 않아 조각품이 훼손되고 실습자료가 없어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관리과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학생들에게 협상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현재 관계 부처와 학생들 간에 합의된 사항은 사실상 없다.

“학교 전체를 생각했을 때 사범대에 소각장이 들어오는 것을 무조건 막을 수만은 없음을 인정한다”는 학생들의 입장을 고려할 때, 제대로 된 절차를 밟아 이해의 과정을 거쳤다면 지금과 같이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은 없었을 것이기에 이번 일이 마냥 아쉬울 뿐이다.

〈고세희 기자〉



교시람